

신약 성서 사본들에 담긴 독자를 돕기 위한 장치들: 현대 번역자들을 위한 고대의 자원

사이먼 크리스프*

신현우 번역**

해리 갬블(Harry Gamble)은 그의 중요한 저서 『초기 교회의 책들과 독자들』에서 초기 기독교 문헌들, 특히 신약성서에 관한 연구가 대개는 내용, 역사, 신학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헌들에 담긴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들이 보기에 매우 즉각적으로 명확하고 인상적인 것은 본문의 물리적 외양이다.”¹⁾ 갬블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록된 말을 담은 물리적 매체가 그 말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즉 외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본문을 다루고 읽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문헌과 그것의 전승에 대해 주로 추상적으로 종종 비역사적으로 심지어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외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사본의 물리적 형태(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책 또는 두루마리)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측면은 본문이 가진 형식이다. 예를 들자면, 한 줄이 몇 개의 글자를 가지는지, 한 페이지에 몇 줄이 담기는지, 얼마나 많은 (또한 어떤 종류의) 구두점들이 사용되는지, 어떤 종류의 주해와 독자를 돕기 위한 다른 장치들을 필사자가 사본에 포함시켰는지 등이 이러한 형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제는 오직 소수의 고서체학자들이나 사본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 여겨지면 안 된다. 고대의 독자들은 현대의 독자들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추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총책임자.

** 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Harry H. Gamble, *Books and Readers in the Early Churc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Texts*, New Haven and Lond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42.

가 자료를 담은 편집물의 형식으로 된 문헌들을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약성서에 관한 한, 그러한 자료의 양은 본문이 필사되고 다시 필사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가된 자료는 비잔틴 시대에 필사된 소문자 사본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독자를 돕기 위한 장치들’에 학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성서번역자들이 사실상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화하려는 최근의 시도로는 해롤드 올리버(Harold Oliver)가 1955에 제출한 신학 석사(M.Th.) 논문(미출판)이 유일하다.²⁾ 이 논문은 그보다 50여 년 이전에 폰 조덴(von Soden)과 그의 조수들이 한 연구 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³⁾ 신약성서 본문의 문단 나누기에 관한 두 개의 논문들이 “페리코피: 고대에 기록되고 읽혀진 성서”라는 시리즈에 출판되었으며,⁴⁾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있어서의 본문 단락 나누기 체계에 관한 논문 두 편이 3년 마다 열리는 UBS 번역 워크숍(2003년도)에서 발표되었다.⁵⁾

신약성서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독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의 정선된 목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특히 성서번역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유익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약성서의 최초의 사본들은 띄어쓰기 없이 기록되었다. 단어들을 띄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구두점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런 점에서 신약성서 사본들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 고대 헬라어 사본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랐을 뿐이다.⁶⁾ 그러나 필사자들은

2) Harold H. Oliver, “‘Helps for Readers’ in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M.Th.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55. Oliver의 논문은 Bruce M. Metzger, *Manuscripts of the Greek Bible: An Introduction to Greek Pala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81)와 Bruce M. Metzger and Bart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에 요약되어 담긴 내용의 기초를 형성한다.

3) Hermann Freiherr von Soden,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in ihrer ältesten erreichbaren Textgestalt*, Volume 1, Part 1.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2.

4) Stanley E. Porter, “Pericope Markers in Some Early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와 David Trobisch, “Structural Markers in New Testament Manuscripts with Special Attention to Observations in Codex Boernerianus (G 012) and Papyrus 46 of the Letters of Paul.” 이 둘 다 M.C.A. Korpel and J.M. Oesch, (eds), *Layout Markers in Biblical Manuscripts and Ugaritic Tablets* (Pericope, Volume 5), (Leiden, E.J. Brill, 2005)에 실려 있음.

5) Simon Wong, “Ancient Windows to the NT Text: Ancient Segmentations on the Gospels”와 Simon Crisp, “Scribal Marks and Logical Paragraphs: Discourse Segmentation Criteria in Manuscripts of the Pauline Corpus.” 이 둘 다 Philip A. Noss, (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Definitions and Identity* (UBS Bulletin Number 198/199),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5)에 실려 있음.

6) E.G. Turner, *Greek Manuscripts of the Ancient World*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Bulletin

신약성서 전승사의 상당히 초기 단계에 어떤 단어들 사이에는 여백을 두기 시작했다. 이것은 본문을 회중 앞에서 정확하게 읽도록 돕기 위한 장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바울 서신을 담고 있는 사본인 파피루스 46에서 어느 정도 발견된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수준의 쉼표나 마침표에 해당하는 위 점, 아래 점, 중간 점을 사용하는 고전 헬라어의 체계를 따르고자 4세기의 대문자 사본들이 시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약 10세기 이후부터 비잔틴 소문자 사본들이 확산되면서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전승 과정의 일부로서 더욱 안정되고 견고하게 사본들 속에 정착되었다.

특히 문장의 논리적 흐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쉼표에 해당하는 구두점을 사용한 것은 고대 문헌들이 본문의 의미에 따라 문단이나 문장이 나누는 곳을 표시한 더욱 체계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콜로메트리’(colometry)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필사 과정의 완전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본문을 동일한 길이의 행들(*stichoi*)로 나누는 좀더 형식적인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본문을 수적으로 계산하여 나누기보다는 논리적 의미 단위들을 강조하는 점에서 다르다.⁷⁾ 본문을 논리적 의미 단위들로 배열하든지, 값비싼 지면을 아끼기 위해 연이어 쓰여진 본문에 구두점을 통해 논리적 분기점을 표시하든지 간에, 이러한 본문 구분 표지는 본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언제 호흡을 위해 쉬어야 할 지 판단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문 구분 표지는 고대 독자들이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관한 매우 소중한 정보도 제공한다.

본문 자체를 배열하고 구성하는 이러한 방식들 외에도, 필사자들(과 후기의 편집자들/교정자들은 그들의 사본들의 여백을 사용하여 본문이 나누어지는 지점을 표시하였다. 특히 예배 때 회중 앞에서 본문을 읽을 때 필요한 문단 나누기가 표시되었다. 각각의 예배용 단락 구분의 시작(*arche*)과 끝(*telos*)이 본문 자체에 표시되었는데, 행간이나 여백에 이 단락이 교회력에 따라 언제 낭송되어야 할 지 알려주는 날짜도 기입되었다.⁸⁾ 이러한 과정의 논리적 종결점은 실제로 비잔틴 시대에 도달되었는데, 그 결과 신약성서 본문의 구절들이 그 본래의 순서를 벗어나 교회력에 따라 예배 때 낭송되는 순서대로 배열된 사본들이 등장하였다.⁹⁾

Supplement 46, second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1987.

7)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Metzger, *Manuscripts of the Greek Bible*, 39 참조.

8) 이러한 정보는 네스틀레-알란트판에도 UBS 헬라어 신약성서에도 담겨 있지 않지만, 이문들을 모아 정렬한 Reuben Swanson의 시리즈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95-; 지금까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관련 권들이 출판됨)의 비평 장치에 (약간의 사본들에 관하여) 담겨 있다.

9)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낭송성구집 사본들은 2432개인데, 신약성서 사본들 전체는 5735개

헬라이어 신약성서 사본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본문 나누기 장치가 몇 가지 (최소한 세 가지) 더 있다. 암모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복음서 단락 구분은 헬라이어 신약성서 판본들의 서설에 포함되어 잘 알려져 있다. 이 단락 구분은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판에도 채택되어 안쪽 여백에 표시되어 있다.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단락들이 몇 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가에 따라 단락들의 이름을 배열하여 이를 10개의 도표로 만들었다. -역자 주) 이 단락 구분과 관련된 도표들과 이에 관하여 유세비우스가 카프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설명은 네스틀레-알란트 판의 서설에 소개되어 있다.¹⁰⁾

중요한 대문자 사본인 바티칸 사본에서 이중적 단락 구분 체계가 발견된다.¹¹⁾ 복음서 부분은 한 가지 종류의 단락 번호를 따르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 부분은 두 가지 종류의 단락 번호를 동시에 따른다. 그리하여 상당히 복잡한 모양새를 이룬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단락 구분 체계에서는 히브리서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 사본에서는 히브리서가 데살로니가후서 뒤에 놓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서의 각 권들을 이처럼 기이하게 배열한 다른 사본으로부터 이 단락번호들이 필사되었다고 가정해야 한다.¹²⁾

가장 널리 퍼진 본문 구분 체계는 때로 헬라 교회의 “공식적 장 구분”이라고 불리는데,¹³⁾ **케팔리아아티트로이** (“장들과 제목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체계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번호가 매겨진 일련의 단락들이고, 둘째는 우리가 오늘날 단락 제목이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간단한 제목들이다. 이 단락 제목들은 본래 사본들의 여백에 기록되었는데,¹⁴⁾ 후에는 각각의 책의 초두(또는 가끔 끝)에 모이게 되었다. 신약성서(최소한 그 주요 구성 요소들이)가 한 권으로 묶인 총서라는 개념이 전통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면서, 부수적 자료들(책의 서설, 전기적 서언, 낭송구절들과 인용구절들의 목록 등)의 집

로서 신약성서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부를 담고 있다(Metzger and Ehrman, *Text of the New Testament*, 50).

- 10) 암모니우스-유세비우스의 단락 구분에 관한 간결한 설명에 관하여는 Wong, “Ancient Windows” (위의 각주 5), 70f 참조.
- 11) 동일한 단락 구분이 본래의 본문을 지우고 6세기에 다시 쓴 사본의 조각인 Codex Zacynthius에도 등장한다.
- 12) Swanson의 시리즈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위의 각주 8 참조)의 후기 권들은 그가 자신의 시리즈를 위해 사용한 사본들에 담긴 신약성서 각 권들의 순서를 제공하는 도표를 제공한다.
- 13) P. Carrington, *The Primitive Christian Calendar: A Study in the Making of the Marcan Gospel*, volume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2). Oliver, “Readers Helps” (위의 각주 2 참조), 30에서 재인용.
- 14) 실제의 예를 보려면 Metzger and Ehrman, *Text of the New Testament*, figure 6 on 37 (단락 제목은 위 여백에 기록됨) 참조.

합도 점점 더 안정적이게 되었는데, 단락 제목들도 이러한 집합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¹⁵⁾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는 단지 낭독 과정을 돕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독자가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의 범주에 속한다.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성서번역 작업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데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영역에서 가장 유망한 연구 영역은 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본문 구분의 의미에 관련된 것이다. 성서번역자들이 본문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원문의 서사적 또는 논리적 구조가 번역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약성서 본문의 구조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저술이 점점 늘고 있다.¹⁶⁾ 이러한 연구는 고대의 본문 구분 체계에 관한 연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의 본문 구분 체계는 신약성서 본문의 구조에 관하여 고대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티틀로이** (단락 제목들)에 관한 정보는 많은 현대 성서 번역본들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린 단락 제목들을 정교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¹⁷⁾ 단락 제목들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편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락 구분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 각각의 단락의 내용을 간략히 표시하여 독자들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들이 고대의 **케팔라이아**와 **티틀로이** 체계에 의하여 얼마나 성취되었는가?”하는 질문을 다룰 것이다. 실제의 예로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택하여 이 서신에 붙인 고대와 현대의 단락 제목들이 관찰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의 **티틀로이**와 단락 제목들

von Soden I.i. p.464f	UBS 번역 지침서 (1976) ¹⁸⁾
	1.1 인사 1.6 다른 복음은 없다

15) **케팔라이아** 번호는 네스틀레-알란트 판 헬라이어 신약성서의 안쪽 여백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판본의 서설에서 설명되었다. **티틀로이**는 일종의 “다수 본문”의 형태로서 von Soden, *Die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402-475에 나열되었으며, 몇몇 사본들에서 발견된 상이한 형태는 Swanson의 시리즈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의 비평 장치에 실려 있다.

16) 이러한 저서들 중에 그저 단지 하나의 예로서 SIL International의 후원으로 출판된 의미 구조 분석에 관한 광범한 시리즈가 언급될 수 있다.

17) 유용한 요약 제시는 Euan Fry, “The Use and Value of Section Headings in Printed Scriptures”, *The Bible Translator* 34:2 (1983), 235-239에서 볼 수 있다.

18) UBS *Helps for Translators*, Volume 4 Part 2, ed., Robert G. Bratcher, *Section Headings for the*

<p>1.11 서언에 이어 [바울이] 계시를 따라 유대교를 떠난 이야기</p> <p>2.1 믿음 안에 있는 삶에 관한 사도들의 증거에 관하여</p> <p>2.11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관하여 베드로와의 논쟁에 관하여</p> <p>3.1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되는가</p> <p>3.7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우리에게 본이 되었는가</p> <p>3.10 어떻게 율법은 의롭다 하지 않고 죄를 고소하고 저주를 가져오는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것이 풀려지는가</p> <p>3.15 어떻게 좋은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기원하며, 율법은 죄를 고소함으로써 [길을] 준비하는가</p> <p>4.1 어떻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 아래 있었는가¹⁹⁾ ow those in the law were</p> <p>4.21 어떻게 자유인 부인과 적자로 묘사된 자들이 율법을 섬길 필요가 없는가</p> <p>5.2 어떻게 우리의 소명이 할례와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존하는가</p> <p>5.13 성령을 따르는 자유에 관한 묘사</p> <p>6.11 [남을] 할례 받게 하려는 자들로부터 돌이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p>	<p>1.11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p> <p>2.1.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다</p> <p>2.11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꾸짖다</p> <p>2.15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p> <p>3.1 율법이나 믿음이나</p> <p>3.15 율법과 약속</p> <p>3.21 율법의 목적</p> <p>4.8 갈라디아 신자들에 관한 바울의 염려</p> <p>4.21 하갈과 사라의 풍유</p> <p>5.2 그리스도인의 자유</p> <p>5.16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행위들</p> <p>6.1 서로의 짐을 지라</p> <p>6.11 최종 경고와 인사</p>
--	---

이 자료를 관찰할 때, 우리는 우선 고대의 **티틀로이**와 현대의 단락 제목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들을 약간 발견하게 된다. 첫째, **티틀로이**는 대개는 단락 제목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분량이 많다. 실제로 갈라디아 4:1에 붙인 (하여간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티틀로스** (제목)만이 UBS 판본에 담긴 단락 제목들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짧다. 둘째, **티틀로이**는 주로 단락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요약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며, 요점을 짧게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5:2의 **티틀로스**와 5:2의 단락 제목을 비교). 셋째, 그것들은 독자들이 약간의 배경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예를 들어, 바울은 어디서도 갈라디아서의 **티틀로이** 목록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들과 두 가지 단락 제목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점들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관한 **티틀로이**와 단락 제목들의) 도표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티틀로이는 총 12개이며, 단락 제목은 총 15개이다. **티틀로스**만 있고 단락 제목은 없는 곳이 4 군데이며, 단락 제목은 있고 **티틀로스**가 없는 곳이 6 군데이다. **티틀로스**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단락 제목이 없는 곳을 우선 살펴 보자.

3:7 - NA27판에는 이 단락 구분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케팔라이아** 번호가 안쪽 여백에 표기되었다. 그러나 UBS 4판에는 새 단락이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판본에 담긴 담화 구분 분석(Discourse Segmentation Analysis, DSA)²⁰에 나열된 현대 성서 번역본들은 이 단락 구분을 따르지 않는다. 7절에서 단락이 구분되면 7절을 앞의 절들보다는 뒤의 절들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독자로 하여금 짙막한 단락 3:7-9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3:10 - 여기서는 NA판은 단락을 구분하지만 GNT 4판(즉 UBS 4판)은 단락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DSA에 의하면 이 단락 구분은 번역 성경들에서 상당히 널리 채택되었다. 이러한 번역 성경들은 여기서 단지 단락만 구분하지만, New Jerusalem Bible은 이 단락에 단락 제목(“The curse brought by the Law”)을 붙인다. 3:10에 붙은 비교적 긴 **티틀로스**는 여기에 왜 단락 제목을 붙이는데에 관한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티틀로스**는 NJB의 경우에서처럼 본문에서 핵

New Testament, Revised Editi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6).

19) 이것은 어려운 표현 *οτι υπο κτισιν ησαν οι εν νομω*의 직역이다. Swanson(ad loc.)은 사본들에 이문 *υποκριων / υποκτιων*이 등장함을 기록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므로, 우리는 문맥에 토대한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20) 담화 구분 분석(Discourse Segmentation Apparatus)은 매우 축약된 형태로 헬라어 신약성서 소형 판본들과 주요 유럽어 번역본들에 담긴 정보를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UBS의 *Greek New Testament* 제 4 판 서설의 44-45 참조.

심 단어들(저주, 율법)을 선택하며, 긴 논증적 형식 속에서 몇몇 단어를 추가한다(의롭게 하다/ δικαιωω 11절, 풀다/ 13절의 εξηγορασει에 해당하는 λυω). 성서번역자들도 3:1-14을(매우 개괄적인 제목을 가진) 한 단락으로 처리한 UBS 판과 달리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눈 고대의 단락 구분에 주목할 만하다.

4:1 - 이 단락 구분은 NA판에도 GNT판(즉 UBS 판)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장 구분으로만 처리되어 있다.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표준 판본들에서는 고의적으로 심지어 새로운 행으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 단락 구분은 4:11이후에야 등장한다. 다수의 현대역본들은 이 곳에서 다양한 단락 제목을 가진다. 루터 번역은 “Befreiung vom Gesetz durch Christus”(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TOB는 “De l'esclavage de la loi à la liberté des enfants de Dieu”(율법의 노예 신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로), NJB는 “Sons of God”(하나님의 자녀들), REB는 “Life under the law”(율법 아래 있는 삶)을 단락 제목으로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들을 이 단락의 **티틀로스**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 **티틀로스**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위의 각주 19번 참조). 4:1-20 전체가 한 **케팔라이온**(장, 단락)으로서 비교적 길지만 예외적으로 짧은 **티틀로스**를 가진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UBS판이 4:8에서 단락 제목을 가지는 것과 비교된다(아래 참조).

5:13 - NA판은 여기에서 한 줄을 떼고 단락을 시작함으로써 **케팔라이아** 체계를 반영한다. Segond “Vivre, non selon la chair, mais selon l'Esprit”(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TOB “La chair et l'Esprit”(육체와 성령), NJB “Liberty and love”(자유와 사랑), REB “Guidance by the Spirit”(성령의 인도하심)도 이를 따랐다. 이 경우에도 **티틀로스**는 본문으로부터 핵심 단어들을 뽑아 내는데(자유/ ελευθερια 13절, 성령/ πνευμα 16절), 이것은 여기에 단락 제목을 붙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것은 심지어 지금도 제목에 사용 가능한 표현이다. 그러나 **케팔라이아** 체계에서 이 단락은 매우 길어서 6:10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하여 5:16-26에 담긴 영적 선물들과 세속적 악들의 목록뿐 아니라 6:1-10에 담긴 더욱 실천적인 권면들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다루는 단락의 일부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 UBS판에는 단락 제목이 있지만, (신약성서 사본들에는) 이에 대응하는 **티틀로스**가 없는 여섯 군대를 살펴보자.

1:1/1:6 - 여기에 **티틀로스**가 없는 것은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와 관련이 있다. 이 체계에서는 첫 단락이 서언으로 간주되어 단락 제목을 갖지 않는다.²¹⁾

21) Wong, “Ancient Windows”(위의 각주 5), 72는 이러한 현상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을 잘 요약해 놓았다.

물론 1:1-10 전체가 서언으로 간주된 것은 흥미롭다. 비록 DSA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른 현대어 번역본들을 잠시 살펴보기만 해도 그 중에 대다수가 1:6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단락 제목도 가짐을 알 수 있다.

2:15 - 여기서 문제는 단락 제목의 형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본문 구분의 위치이다. 다수의 현대 번역본들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직접 인용할 때 14절 끝에서 마친다. 이 역본들은 15-21절이 독자 일반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케팔라이아티들로이** 체계에 반영된 전통은 본문을 21절까지 연이어 읽거나 다른 곳에서 단락을 구분하는 예배 의식이 그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한다.²²⁾ 이러한 차이는 물론 각각의 번역자들이 2:11-21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구두점 찍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²³⁾ 15절에 **티들로스**가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증거는 번역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정할 때 다른 판단 기준들과 함께 고려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3:21 - 여기서 UBS 판은 단락 제목을 넣도록 권장하는데 이것은 고대의 **케팔라이아티들로이** 체계와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번역성경 편집자들의 견해와도 다르다. DSA가 표시하듯이 고려된 어떤 번역본도 여기서 단락 제목을 갖지 않으며 단지 약간의 번역본들이 여기서 새로운 소단락을 시작할 뿐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은 본문의 구조를 신중하게 고찰하기 원하며 여기서 UBS 판의 권면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고대 전승에는 단락 구분도 제목도 없다는 것은 본문의 구조를 고찰할 때 그들이 고려할 만한 판단 기준들 중의 하나이다.

4:8 - 여기에 단락 제목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3:15-4:20 구조에 관한 더 거시적인 문제의 일부이다. **케팔라이아티들로이** 체계에서는 이것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고(3:15-28과 4:1-20), UBS판의 체계에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3:15-20; 3:21-4:7; 4:8-20). 이미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4:1에서 단락을 구분하고 단락 제목을 붙이는 현대 번역본들도 꽤 많다. 그렇지만 고대의 단락 구분 체계와 현대의 단락 구분 체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도는 상당히 심하다. UBS판이 권장하는 본문 구분과 단락 제목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5:16과 6:1 - 이것은 앞에서 다룬 경우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UBS판

22) 예배용 성구집 단락이 2:16에서 시작된다는 증거가 사본 여백에 상당히 담겨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Swanson,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Galatians*, ad loc. 참조.

23) 이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번역의 관점에서 다룬 것을 보려면 Danny C. Arichea and Eugen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6), ad loc. 참조.

의 단락 제목들 자체가 5:16-26과 6:1-10의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하다고 논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나누어져야 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에서는 5:2-6:10가 두 개의 단락들로 나누어진 다(5:2-12와 5:13-6:10). 그러나 UBS판에서는 세 개로 나누어진 다(5:2-15; 5:16-26; 6:1-10). DSA는 헬라이어 소형 판본들과 몇몇 현대 번역본들에 담겨 있는 이 본문 구분에 관한 값진 정보를 번역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에 보존된 더 오래된 본문 구분과 단락 제목 체계에 담긴 정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틀로스와 UBS판의 단락 제목이 동일한 구절에 붙여진 곳이 일곱 군데 있다. 이것들은 다소 다루기 쉬운데, 그 이유는 본문 구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락 제목에 사용된 각각의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 번역자들과 편집자들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

1:11 - **티틀로스**는 본문으로부터 각각의 단어들을 뽑아낸다(계시/ ἀποκάλυψις 12절, 유대교/ ιουδαισμος 13절). 그리하여 일반적인 요약을 제공하기보다는 단락의 내용의 독특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보다는 그가 유대교로부터 떠난 것을 이 단락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2:1 - 단락 제목에 사용된 각각의 표현들은 여기서 초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UBS판의 단락 제목은 이 단락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간주하는데, **티틀로스**의 경우에는 이 단락이 신학적으로 회적 문제(신앙의 삶)를 다룬다고 여긴다. 담화의 서사적 측면보다는 주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2:11 - 여기서도 **티틀로스**는 단락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비록 서사적 배경은 언급되었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논쟁의 발생보다는 그 내용이 강조된다. 이것은 현대 번역자들이 고려하기 원할 만한 것이다.

3:1 - 여기서는 **티틀로스**와 단락 제목이 비교적 단순하다. 둘 다 율법과 믿음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티틀로스**는 다소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다. (다만 이 **티틀로스**가 이 후 단락들에 비추어 볼 때 “칭의”가 그 주제로 기대되는 단락에 성화/ αγιασμος를 단락의 주제로 삼은 것은 좀 뜻밖이다.) 그러나 3장에 붙인 **티틀로이**가 전체적으로 본문의 구조에 관해 세밀하고 명확한 요약을 제공하는 방식에 담긴 함의들을 고려하면 현대 번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4:21 - 여기서 **티틀로스**와 UBS판의 단락 제목은 단락의 핵심을 동일하게 뽑아내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UBS판의 단락 제목은 애매하리만큼 짧다.

(UBS판의 단락 제목들을 따르는 몇몇 번역본들은 ‘풍유’라는 전문 용어 대신에 ‘예’[example]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티틀로스**는 단란의 내용에 관한 간결한 요약의 제공하는데 이것은 - 비록 실제의 단락 제목으로서는 너무 자세하겠지만 - 가능한 본보기로서 고려할 만하다.

5:2 - 이것은 단락 제목을 붙이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에 관한 명확한 예이다. UBS판의 단락 제목은 매우 간결하지만 **티틀로스**는 할례와 율법의 주제에 관하여 다소 자세하게 다룬다. 특히 11-12절에 담긴 이 주제에 관한 바울의 솔직한 말을 통해서 볼 때 이처럼 자세한 제목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5:13에서 단락이 나누어지고 새로운 제목이 붙여지는 것도 이처럼 자세한 제목을 정당화한다.

6:11 - 여기서도 **티틀로스**는 단락의 내용(요약의 일종으로서의 “성령 안에서 의 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며, 13절이 할례에 관하여 두 번 언급하는 것과 특별히 연관된다. UBS판의 단락 제목은 “최종 경고”인데, 이것은 **티틀로스**와는 달리 매우 일반적인 요약을 제공하며 내용보다는 마감 인사로서의 그 단락의 기능에 집중한다.

독자들을 돕기 위한 장치 일반과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의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의 편집에 관한 고대와 현대의 접근을 비교함에 내재하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비록 고대와 현대 편집자들이 독자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들이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체계들은 동일하지 않으며 항상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 우리가 (최소한 갈라디아서의 경우 한해서는) 좀더 자세히 고찰한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의 경우에는 단락을 구분하고 이를 표시하는 고대의 전통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체계는 다른 전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티틀로이**는 분명히 현대의 단락 제목들의 경우에서처럼 본문 속에 흩어져 있기보다는 연달아 읽기에 더욱 적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를 고찰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케팔라이아**와 **티틀로이**를 신중하게 연구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한 매우 값지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제안들을 얻는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번역자들과 편집자들이 고려하도록 조언 받을 만한 것이다.

둘째,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는 전반적으로 - 특히 유탈리우스(Euthalius) 판의 경우에서처럼 **휘포테세이스** 즉 책의 서설들과 함께 읽을 때 - 고대의 편집자들이 본문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에 관하여 (교회의 공식적 전통이 된

이 체계를 통하여) 많은 유용한 통찰들을 제공한다. 최소한 그들의 구조 파악은 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며 신중하게 고찰되어야 한다.²⁴⁾

마지막으로 아주 실제적인 결론을 다음처럼 내릴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서의 **케팔라이아-티틀로이** 체계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UBS 판 헬라어 신약성서에 포함된 담화 구분 장치(Discourse Segmentation Apparatus)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앞으로 발간될 UBS 헬라어 성서의 판본들에서는 이 장치가 **케팔라이아** 구분만이 아니라 고대의 본문 구분 체계 일반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아시아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DSA 편집자들이 이 장치에 담을 현대 번역들을 선택할 때 덜 유럽 중심적이기를 소망한다.

<Keywords>

단락 제목, 단락 구분, 단락 내용, 그리스어 사본, 성서 번역.

24) 민수기의 본문 구분을 위하여 고대의 표지들을 연구한 결과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 관해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David J. Clark, "The Placement of Section Headings: A Neglected Old Testament Discourse Resource", *The Bible Translator* 55:2 (2004), 201-212 참조.

<Abstract>

**Helps for Readers in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An Ancient Resource for Modern Translators**

Dr. Simon Crisp
(UBS Director of Translation Services)

Materials additional to the biblical text, various kinds of ‘helps for readers’, became an integral part of the Greek manuscript tradition of the New Testament, as they have done in modern printed editions. The paper surveys a range of these phenomena: punctuation marks, division into sense lines and section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system of *kephalaia titloi* (“chapters and titles”) which is widespread in Byzantine manuscripts; the major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a detailed comparison of the system of *kephalaia titloi* in Galatians with a set of modern section headings offer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It is argued that such a comparison generates much useful information for Bible translators – both in demonstrating how the text was segmented in antiquity, and in offering different formulations of the section headings themselves.